

공감

행복한 날외골 마을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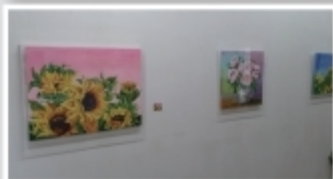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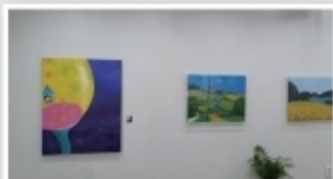
vol.5 / 2019. 12



2미다 하반기 운영프로그램

7월

6/7~7/23



바리스타양성교육
(마을갤러리 상시운영)

7/24

마을부
(파리고추 감자조림
· 가지불고기)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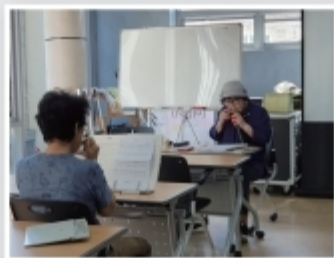
8/21~12/11



날뽕골 민요교실

2020

8/1~1/16



날뽕골 음악단
(하모니카) 하반기교육

9월

9/2~11/25

마을문화해설사
역량강화교육(시낭송)

9/25



마을부엌
(치즈단호박전,
황태콩나물찜)

10월

9/5~11/21



한지공예

10/25~12/13

원예관리사 양성교육

10/30

마을부엌
(표고버섯잡채,
북어포사과채무침)

11월

9/28~11/30



벽화동아리

11/27

마을부엌
(치즈닭갈비, 더덕무침)

12월

9/2~12/9



날뽕골 음악단(오카리나)

11/5~12/24



수공예동아리(한지공예)

머물고 싶은 곳

달성이 토성이가 방방곡곡 사람들을 맞이하는 달성토성마을에 내가 머물며 살아가고 있다. 골목골목마다 꽃들이 나뭇잎을 뽐내며 예쁘다고 자랑을 하고 푸른 나무들은 힘찬 울림으로 말을 한다. 건강하다고 행복하다고 보살핌에 감사하다고 이런 골목을 거닐며 힐링도 하고 동네분들과 인사도 나눈다.

또한 우리 동네 자랑거리인 다락방엔 여유롭게 차 마실 수 있는 공간과 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어 나는 참 좋다.

옆에 자리한 역사마당엔 사적 62호 달성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가 되어있고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더욱 좋다. 하나하나 변해가고 있는 우리 달성토성마을에 매력을 느낀다. 오래 머물고 싶은 곳 ...

달성토성마을. ∞이사장 김옥빈



한지

한지 수업을 시작한 지도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 작은 소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한지는 어린 시절 문에 바르는 종이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소품을 만들 수 있구나 싶어서 놀랐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수록 신기했습니다.

한지를 사용하여 작은 함, 잔 받침대와 같은 소도구를 만들거나 한지공예를 현대에 접목시켜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어 한지 수업이 있는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소품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니 어느덧 장식장 같은 작품까지 만들고 올여름에는 *작품 전시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뜻깊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끼리 서로서로 돕기도 하고 한지공예를 하면서 잡생각도 떨치고 작품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로 '絹五百 紙千年' (견오백 지천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단은 오백 년 가지만 한지는 천년을 간다는 말로 제가 만든 작품을 후손에게 남겨 줄 거라는 마음에 더욱 더 정성을 쏟아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선





민요반

2019년 11월 16일 서구 17개 동 중 비산 2·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식전행사로 민요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이 서툴지만 제각기 한복을 차려 입고 쪽 머리예다 속눈썹까지 붙이고 「아리랑」 2소절 「너영나영」 3소절 「밀양아리랑」 2소절 11명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열심히 목청 높이 노래 부르고 많은 박수를 받고 뿌듯했습니다.

윤차옥 선생님의 훌륭한 지도 아래 노래가락 시조까지 익히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달성토성축제때 실력발휘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 12. 10 ∞서태숙



하모니카

우리 마을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하모니카 소리를 상상하며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에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곡을 배울까. '오빠 생각, 섬집아기, 아 목동아, 짙레꽃' 모두 주옥같은 노래들입니다.

섬집아기를 처음 배웠을 때 내가 이 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이 설레는 하루가 됩니다. ∞권향인

시 낭송

삭막했던 우리의 가슴에 '시'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잠자고 있던 우리의 감성을 깨워주고 마음의 평온함도 함께 찾게 해 준 선물 같은 '시'.

시로 인해 서로서로의 마음도 조금은 엮일 수 있었고 자신이란 자아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 낭송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시가 있어 참 아름다운 달성토성마을에 별과 같이 빛을 발하며 꽃향기 흩날립니다. 시의 향기 웃음을 토해내는 달성토성마을의 다락방 훈훈합니다. 화 이 텅 ∞최혜정



온실

마을에 달성토성마을 온실이 생기고 간간이 다육이 관련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수업으로 김문찬 선생님을 모시고 온실의 적정온도, 습도, 환기, 물 주기, 병충해 예방 등 다양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다육이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떨어진 앞에서 작은 생명이 다시 탄생이 되는 식물입니다. 이 작은 잎들을 이용해서 키워보고 또 배양해 보는 작업들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온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 가면서 더디지만 천천히 갈려고 합니다. 앞으로 온실에서의 작은 일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큰 열매를 맺는데 기여도 하고 골목 정원의 놀이터로 잘 가꾸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경숙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카페

예전에 마을에 사시던 분들이 인근의 아파트나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신 후에 간혹 마을에 관해서 매스컴이나 신문 등을 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집와서 오래 살던 곳이라 남다른 애정이 있다면서 제2의 고향이라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옛 추억들을 더듬으며 이야기 할수 있는 곳...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카페입니다.

대부분 마음먹고 오시는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다락방 카페는 달성토성이라는 큰 문화재를 배경으로 사계절 모두가 운치가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신록과 짙은 녹음...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정취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인테리어 장식보다가는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카페의 분위기를 높였고 착한 가격대의 커피와 음료.. 마을의 바리스타 분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는 정겨운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북 카페로 운영되니 도서대출도 가능하고 미취학 아동과 함께 오는 경우는 편의 시설로 누리 방도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뿐만 아니라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카페로 겨울 소풍 오세요. ∞신경남



자동차들이 쉬어가는 곳



달성토성마을 주차장... 2017년 7월 1일~~~ 달성토성마을 주차장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달려드렸는데 막상 문을 열고나니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차장에 대하여 거친 말을 할 때에~~^^ 참 겁도 없이 대항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군요.

주차장 관리할 사람이 핑크를 내는 바람에 4일이란 시간 속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장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 공부를 다시 하게 만든 달성토성마을 주차장~~ 달성토성마을 골목 정원과 함께 주차장은 나에겐 많은 추억과 함께 웃고 울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달성토성마을 주차장 처음엔 말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묵묵히 잘 관리하여 주신 권중만 선생님께 감사의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달성토마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달성토성마을 주차장이랍니다. ∞이갑연



2020년

제5회 풍물제를 행복이

달성토성마을 풍물단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최초로 비산 2·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고 11월 16일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으로 김장 나눔과 출범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달성토성 풍물단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길놀이를 시작하고 그 흥겨움을 그대로 안고 20명의 단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풍물단의 첫 데뷔 무대를 마을 분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연습을 실전처럼 임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달성토성 풍물단 얼씨구 좋다~^^ ∞이향자

꽃길 따라 이야기 길 따라~~

마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벽화들, 갖가지 정겨운 이름을 가진 골목 정원들을 꽃길 따라 이야기를 따라 걷노라며 한, 두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수많은 아기자기한 골목들이 도시 속 진주처럼 숨겨져있는 이곳 달성토성마을,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비산 2·3동, 날외 2·3동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저는 달성토성 마을을 투어 오신 손님들께 달성토성 마을은 골목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마을 일뿐 아니라 인문학 동네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인문학하면 문학, 역사, 철학을 떠올리지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2천 년의 역사를 가진 달성토성을 에워싼 마을, 토성의 역사가 그 만 큼이니 마을의 역사도 얼마나 깊을지 짐작이 갑니다. 대구 사람이라면 비산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동네이다 보니 사람들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마을 이야기도 많습니다. 4만 8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100년 역사를 가진 대구 서부초등학교도 바로 이 마을에 있습니다. 이 마을 이야기를 주민들이 2016년 제1회 골목축제를 한 그해 12월 만들어 엮어낸 책이 바로 「그래도 비산동은 내 동네다」입니다. 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비산동 책이지요.

2017년에는 비산동 곳곳의 흔적을 찍어서 사진전을 열어 달성토성마을을 알렸습니다. 「사진에 담은 우리 동네 그리고 사람들」의 사진전은 홍보효과가 정말 컸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원식 선생님께서 찍으신 옛날의 비산동 사진도 함께 전시하여 비산동의 변화된 모습도 알리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달성토성 마을 공부방 어린이들이 작사한 「비산동으로 가는 길」 노래는 언제 들어도 경쾌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집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합해 마을 이야기책을 만들고, 마을 사진을 찍어 사진전을 열어 알리는 동네, 주민들이 그려 나가는 마을 벽화들, 어린이들이 마을 노래도 작사해서 축제 때마다 무대에 올라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곳 그래서 저는 인문학 동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를 추억하며 내일을 이야기하는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해 우리마을이 정말 많이 깨끗해졌고 골목 정원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이 나서 이제는 우리가 견학을 가서 부러워했던 제주도, 금정마을, 동피랑 마을 주민들이 역으로 우리 비산동 마을에 관광 버스를 타고 투어 오십니다.(작년에만 해도 제주도 주민들이 4번이나 투어오셨어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요? 이 모두가 우리 비산동 주민들이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맘껏 비산동에 사는 것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음으로 양으로 도와 주시고 앞장서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마을의 모든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내시고 주인정신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해설사들은 투어 오시는 외부 손님들께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엮어서 마을 이야기꾼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힘이고 희망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달성토성마을 문화해설사 김연희

공감

행복한 날외골 마을신문